

해운대구 지속가능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식 연구

사회자본 구축 및 증진을 중심으로

요 약 본

I.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건축법상 주거용 사용 공간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한다.

공유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서구의 아파트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사유재산이자 경제적 가치창출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고층화·대단지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내밀화된 사적 가치 충족 공간’으로 그 입지가 점차 공고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근린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요인이다. 최근 들어 근린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운동이 풀뿌리 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과 터전’이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아파트가 갖는 공간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 연결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문화공동체와 같은 주민공론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플리마켓, 공동육아 등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돌봄 서비스 등이 결합된 모델도 효율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나눔과 협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공간이라는 ‘아파트 공동체’의 가치로 공유된다면, 사적 재화 축적이라는 기존의 아파트가 갖는 상징성 너머 새로운 이상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밀집도가 매우 높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권역별 아파트 단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해운대구에서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총 7개 권역(우동, 중동, 송정, 좌동, 반여, 반송, 재송권역)으로 나누어 표본을 선정하고, 심층면접형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운대구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안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수요도를 파악함으로써 현장맞춤형 규정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폐쇄적이고 개인화된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뢰-호혜적 규범-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활용한 설문지 구조화 작업을 거쳤다.

또한 각 권역별 민간아파트를 비롯해 국민/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광범위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도출함을 목표로 하였다.

II 연구 설계

1. 사회자본의 가치를 반영한 설문지 구조화

사회자본은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물리적 생산시설을 통해서는 결코 취득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의 대표적 사례로 콜먼(Coleman, 1988)은 공동체 유대감이 개인에게 주는 이익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여성이 밤길을 혼자 걷거나, 어린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안전에 공동체의 관리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콜먼은 사회자본에 있어서 개인의 집합이익(collective benefits of personal)을 최상위의 지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한 사회자본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제시된다.

첫째,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네트워크에 가입됨으로써 집단/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에게 공헌하는지?

둘째, 사람들이 어떻게 협동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접근권과 참여의 유형에 대해 모두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단위 사회자본 측정 지표 개발 및 분석을 수행해 온 OECD의 사회자본 연구 프로젝트에 주목했으며, <표 1>과 같은 사회자본 분석 지표 디자인을 활용하였다.

<표 1> 사회자본 분석 지표 디자인(Scrivens&Smith, 2013;43-55)

항목	비목	분석 지표
사적 관계	사회적 접촉	- 면대면 관계(가족, 친척, 친구들과의 면대면 관계 빈도) - 원격 관계(가족, 친척, 친구들과의 전화, 편지, 이메일 등 빈도)
	사적 관계의 질	- 사적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 - 응답자와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 관계
	사회적 연결에 대한 감정	- 사회적 연결관계의 강도를 측정 - 관계에 대한 만족도 측정
사회적	일반적 지원	- 개인의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지원	무보수 지원	- 무보수 지원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감정
시민 참여	결사체 참여	- 다양한 결사체 참여
	자원봉사	- 정형화/비정형화된 자원봉사 참여
	정치적 참여	- 정치적 영역에서의 시민 활동
	공동체 활동	- 공동체의 온/오프라인 활동 참여
	기부	- 경제적/비경제적 기부 참여
신뢰와 협동 규범	일반화된 신뢰	- 조사지역별 신뢰의 기준 제시 필요
	제도에 대한 신뢰	- 개별 제도/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
	협동 규범	- 타인과의 협동에 대한 동의/비동의

〈표 1〉을 활용해 해운대구 아파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 측정 및 진단을 위한 지표 및 세부 설문항목은 〈표 2〉와 같이 설계했다.

〈표 2〉 해운대구 아파트 공동체 사회자본 측정 및 진단을 위한 지표 및 세부 문항

항목	비목	설문 문항
사적 관계	사회적 접촉	- 주 중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주 중 가장 많이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적 관계의 질	- 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 교류를 하십니까?
	사회적 연결에 대한 감정	- 앞서 제시하신 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일반적 지원	-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건강, 물건옮기기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보수 지원	- 최근 4주 동안 가족이 아닌 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무보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건강 서비스(물리치료, 기본건강진단, 건강체조 등) · 돌봄 서비스(목욕, 의복, 식사 등) · 가사활동(의식주 등) · 기타 지원
시민 참여	결사체 참여	- 최근 4주 동안 참여한 모임이나 회의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원봉사	- 최근 4주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치적 참여 & 공동체 활동	- 최근 4주 동안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나 모임에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신뢰와 협동 규범	협동규범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은?
	소통과 신뢰도	- 공동체 소통 네트워크 현황 및 참여도는?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구의 지속가능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식 연구를 사회자본 구축 및 증진의 관점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표 2>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척도만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2>를 활용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해 1:1 심층인터뷰 형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3> 조사 설계 및 진행 방식

구분	항목	주요내용
조사구간	해운대구 7개권역	우동, 중동, 송정동, 좌동,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조사대상	공간	권역별 대표 아파트 약 10개동 ※ 유형별 임대아파트 유형별 포함
	사람	입주자 필요 시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조사방법	대면 심층인터뷰	1:1 심층면접

조사구간은 앞서 제시한 해운대구 7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각 권역별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 거주민을 우선으로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본 조사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조사요원 7인이 각 권역별 전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완료된 설문항목은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해 1차 코딩과정을 거쳐 raw-data를 확보하고, 이를 UCINET v.6과 SPSS v.16을 활용해 각각 사회연결망 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III 분석결과

1. 전체 조사현황

해운대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 조사는 2020년 12월 ~ 2021년 2월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해운대구 아파트 거주민 1,116인이 참여했다. 세부 조사현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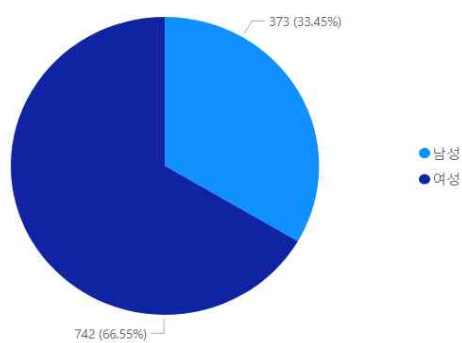
〈표 4〉 조사현황

권역	조사참여	조사대상지
반송동	161인	- 공공임대 : 반송주공아파트, 반송도개공아파트 - 민간 : 삼한그린맨션, 삼정그린코아, 한라아파트
반여동	173인	- 민간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그린파크, 현대그린아파트, 센텀강변현대아파트, 왕자아파트
송정동	107인	- 국민임대 : 송정휴먼시아아파트, 송정1단지주공아파트 - 민간 : 세양쉬에당파크, 쓸데까사
우동	158인	- 민간 : 협성엠파이어, 롯데아파트, 동일아파트, 대우마리나, 두산위브더제니스, 협성그린, 카멜리아, 트럼프월드, 반도보라빌, 현대베네시티, 신동비치, 신동아, 해운대파크, 벽산E클래스원, 센텀두산위브, 자이, 경남마리나
재송동	153인	- 민간 : 우신골든빌, 글로리아, 현대아파트, 센텀리슈빌
좌동	230인	- 공공임대 : LH뜨란채아파트 - 민간 : 두산1차, 두산2차, 경남아너스빌, 상록, 벽산, 롯데3차, 건영1차, 건영2차, 신성, 화목, LG, 센트럴파크, 대림1차, 대림2차, 대동, 대우, 코오롱, 하늘채, 이안, 두산동국
중동	134인	- 민간 : 래미안, 이안, 대우, SK, 비치베르빌, 동원비스타, 양운내안애플리스, 롯데캐슬비치, 롯데캐슬마린, 동일, 힐스테이트, L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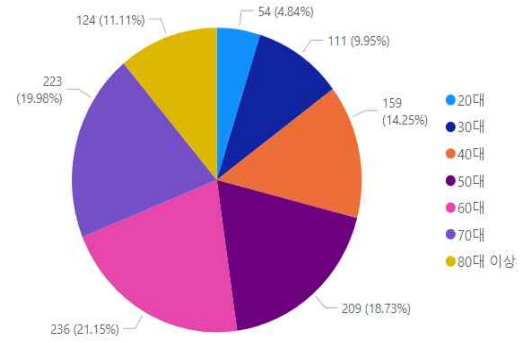
조사 참여자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373인, 여성이 743인으로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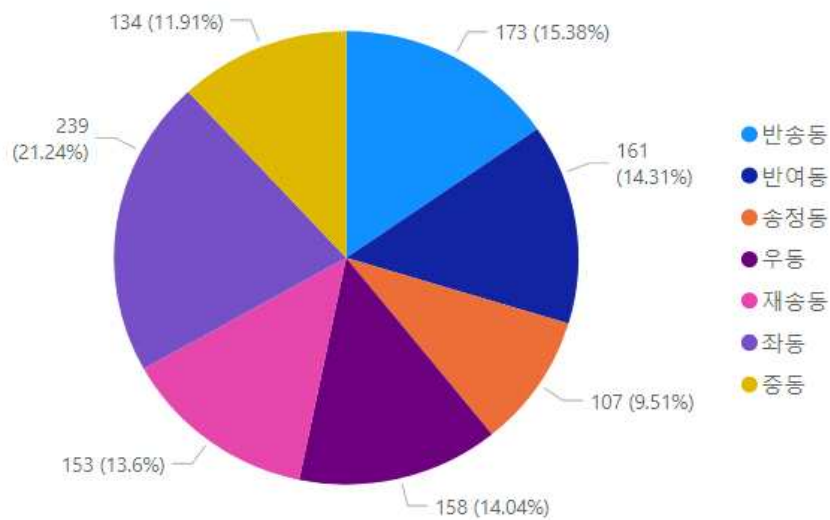
연령대별 참여자 분석 결과, 60대가 236인(21.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대(223인, 19.98%), 50대(209인, 18.73%), 40대(159인, 14.25%), 80대 이상(124인, 11.11%), 30대(111인, 9.95%), 20대 (54인, 4.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조사참여자 성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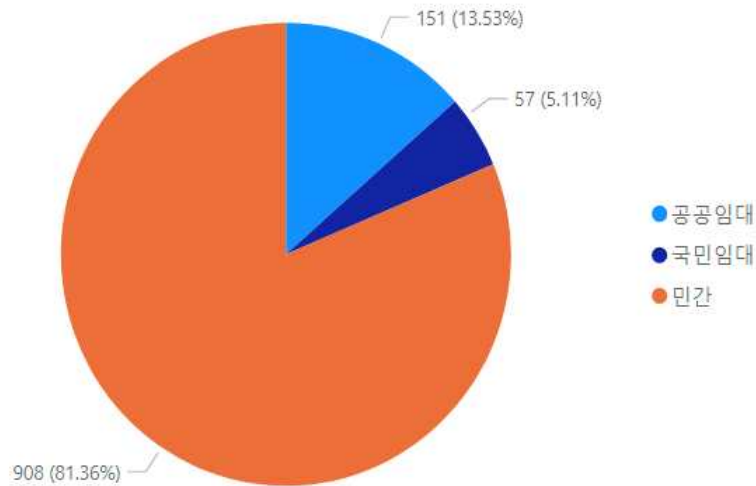
〈그림 2〉 조사참여자 연령대 분포도



〈그림 3〉 조사 참여자 권역별 분포도

권역별 참여 현황에 있어서는 좌동(239인, 21.2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반송동(173인, 15.38%), 반여동(161인, 14.31%), 우동(158인, 14.04%), 재송동(153인, 13.6%), 증동(134인, 11.91%), 송정동(107인, 9.5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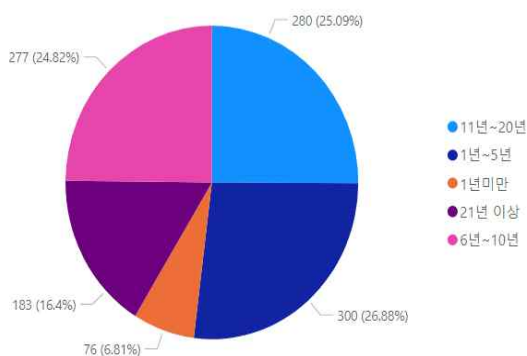
조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유형과 관련, 민간아파트가 908건(81.36%)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공공임대 151건(13.53%), 국민임대 57건(5.11%)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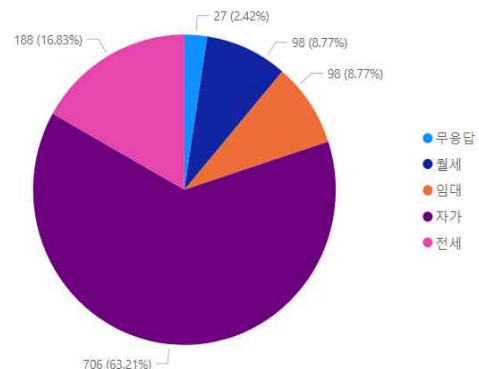
〈그림 4〉 아파트 유형별 분포도

거주기간과 관련, 1년~5년 거주자가 300인(26.88%)으로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이어서 11년~20년(280인, 25.09%), 6년~10년(277인, 24.82%), 21년 이상(183인, 16.4%), 1년 미만(76인, 6.81%)의 순으로 조사됐다. 1년~5년 거주자가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해운대구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짐작되지만,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비율(21년 이상)이 16.4%로 비교적 낮다는 점은 정주율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권역별 거주기간 분포도를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 봐야 할 부분이다.

아파트 점유형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가(가족소유 포함)라고 응답한 주민이 706인(63.21%)으로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이어서 전세(188인, 16.83%), 월세와 임대 각 98인(8.77%)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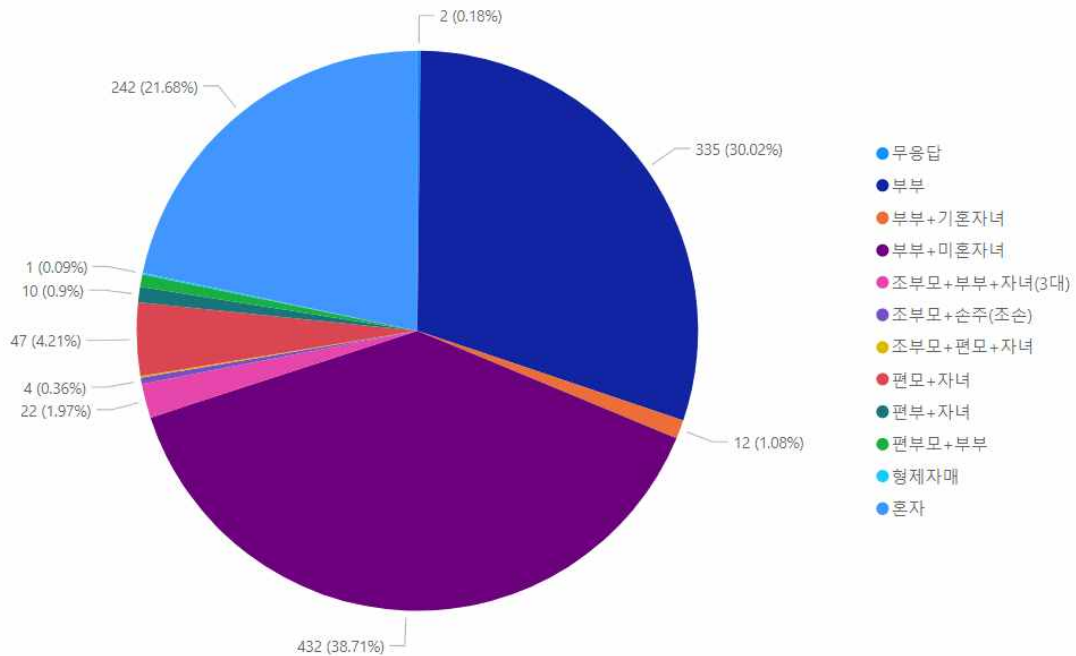


〈그림 5〉 거주기간 분포도



〈그림 6〉 점유형태 분포도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미혼자녀’ 구성이 432가구(38.71%)로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이어서 ‘부부’(335가구, 30.02%), ‘1인’(242가구, 21.68%), ‘편모+자녀’(47가구, 4.21%), ‘3대’(22가구, 1.97%), ‘부부+기혼자녀’(12가구, 1.08%), ‘편부모+부부’(8가구, 0.7%), ‘조손가구’(4가구, 0.36%)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와 미혼자녀의 2대로 구성된 가구 형태가 가장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1인 가구의 비중도 낮지 않다는 점은 권역별 조사 결과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림 7〉 가구형태 분포도

2. 반송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반송동 권역에서는 총 161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표 5>와 같다.

연령대 분포도에 있어서는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80대 이상,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 유형에 있어서는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분포가 많았으며, 거주기간은 21년 이상 > 11년~20년의 순으로 정주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67.08%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지수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반송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반송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71	44.1	373	33.42
	여성	90	55.9	743	66.58
연령대	20대	1	0.62	54	4.84
	30대	-	-	111	9.95
	40대	15	9.31	159	14.25
	50대	14	8.69	209	18.73
	60대	39	24.22	236	21.15
	70대	51	31.67	223	19.98
	80대 이상	41	25.46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61	37.89	908	81.36
	국민임대	-	-	57	5.11
	공공임대	100	62.11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3	1.86	76	6.81
	1년~5년	28	17.39	300	26.88
	6년~10년	35	21.74	277	24.82
	11년~20년	41	25.46	280	25.09
	21년 이상	54	33.54	183	16.4
점유형태	전세	10	6.21	188	16.83
	월세	3	1.86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42	26.08	706	63.21
	임대	98	60.87	98	8.77
	무응답	8	4.97	-	-
가구형태	부부	38	23.60	335	30.02
	부부+미혼자녀	8	4.97	432	38.71
	부부+기혼자녀	-	-	12	1.08
	편부+자녀	2	1.24		
	편모+자녀	5	3.1	47	4.21
	양친+부부	-	-		
	편부모+부부	-	-	8	0.7
	조부모+손주	-	-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	-	22	1.97
	혼자	108	67.08	242	21.68
	비혈연가구	-	-		
	기타	-	-		

1) 공동체 연결망

반송동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민연결망을 조사한 결과 ‘이웃’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인 중 114인이 일주일 단위 가장 많이 교류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응답했다. 이어서 ‘가족’(53n), ‘친구’(6n), ‘동대표’(1n), ‘관리사무소장’(1n)의 순으로 주민연결망이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연결망은 공적인 성격보다는 사적 교류의 성격이 강한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니며, 보통 ‘가족’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는 편이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반송동 주민연결망에서는 ‘이웃’ 네트워크가 ‘가족’보다 배 이상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것이 특이점이다. 이는 밀집된 아파트라는 구조적 환경에서 이웃 간 네트워킹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보다는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 즉 ‘공동체 리더’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네트워크는 ‘경비실 직원’이었으며, 이어서 ‘관리사무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통장’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특히 경비실 직원에 대한 중심성이 높게 형성된 점이 특징이었다.

반송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네트워크는 ‘관리사무소장’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비실 직원’, ‘동대표’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이처럼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영향력 있는 관계망은 앞서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평소 물리적-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최단 경로, 즉 소셜케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 그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으며, 이어서 ‘관공서’, ‘이웃’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특히 소셜케어 관계망에 있어서 ‘관공서’(22명, 13.67%)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비교적 높게 형성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주민센터, 치안센터, 안전센터 등 공적 돌봄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1인가구의 높은 비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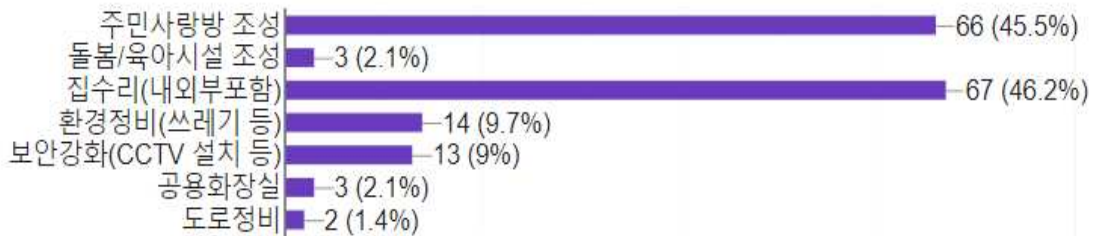
아파트 거주민들의 이웃 신뢰도는 응답자 중 43.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신뢰’(26.9%), ‘신뢰하지 않음’(14.4%), ‘매우 신뢰’(13.1%)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신뢰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반송동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현 거주지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집수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충간소음’, ‘애완견’, ‘(교통)접근성 낮

음’, ‘실내흡연’ 등의 문제점이 제시됐다. 특히 집수리의 경우 민간/임대 아파트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노후화된 아파트 유지보수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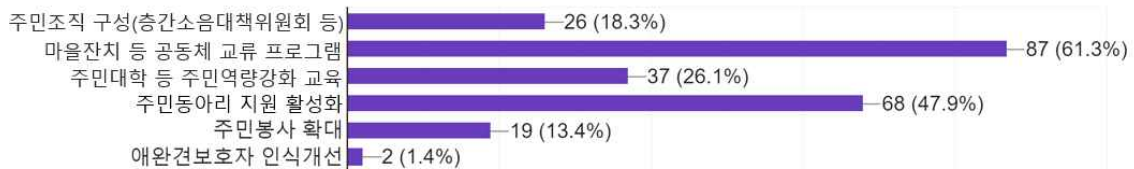
거주하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8> ~ <그림10>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8> 반송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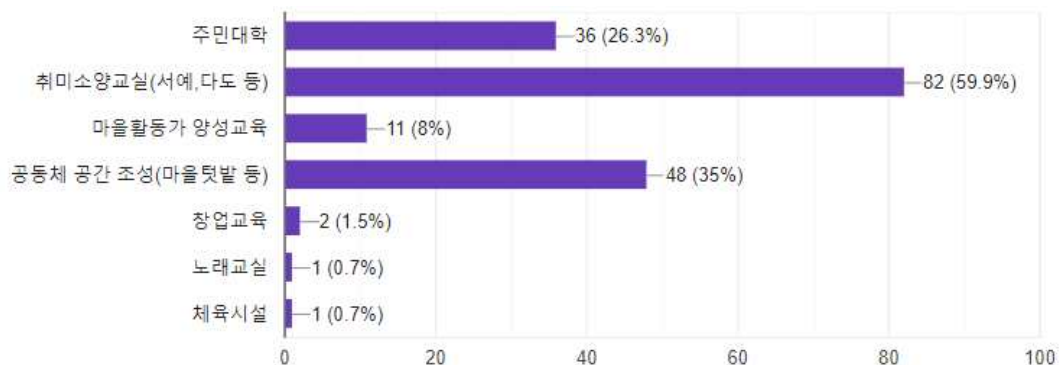
<그림 9> 반송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10> 반송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관련, 취미소양교실 > 공동체 공간 조성 > 주민대학의 순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림 11> 반송동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의향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모임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159인 중 85인(53.46%)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노인들과 어울리기 싫어’, ‘생업이 바빠’, ‘필요성을 못 느껴’, ‘몸이 불편해’, ‘이웃과 교류할 생각이 없어’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주민이 74인(46.54%)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 반여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반여동 권역에서는 총 173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령대 분포도에 있어서는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60대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반송동보다는 고령화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37.57%)에 이어 ‘부부+미혼자녀’(34.68%)의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반여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반여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67	38.73	373	33.42
	여성	106	61.27	743	66.58
연령대	20대	5	2.89	54	4.84
	30대	15	8.67	111	9.95
	40대	15	8.67	159	14.25
	50대	34	19.65	209	18.73
	60대	43	24.85	236	21.15
	70대	50	28.9	223	19.98
	80대 이상	11	6.36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173	100.0	908	81.36
	국민임대	-	-	57	5.11
	공공임대	-	-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9	5.2	76	6.81
	1년~5년	20	11.56	300	26.88
	6년~10년	29	16.76	277	24.82
	11년~20년	77	44.51	280	25.09
	21년 이상	38	21.96	183	16.4

점유형태	전세	29	16.76	188	16.83
	월세	-	-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143	82.66	706	63.21
	임대	-	-	98	8.77
	무응답	1	0.58	-	-
가구형태	부부	65	37.57	335	30.02
	부부+미혼자녀	60	34.68	432	38.71
	부부+기혼자녀	-	-	12	1.08
	편부+자녀	-	-	-	-
	편모+자녀	8	4.62	47	4.21
	양친+부부	-	-	-	-
	편부모+부부	1	0.58	8	0.7
	조부모+손주	1	0.58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3	1.73	22	1.97
	혼자	35	20.23	242	21.68
	비혈연가구	-	-	-	-
	기타	-	-	-	-

1) 공동체 연결망

반여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주일 단위 가장 많이 교류하는 사람, 즉 중심성 높은 인적 관계망을 살펴본 결과 ‘가족’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친구’, ‘이웃’의 순으로 사람과의 관계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반송동과 달리 이웃과의 관계망은 중심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73인의 응답자 중 사람과의 관계망이 없다고 응답한 주민은 10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립된 주민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경비실 직원’ 그룹이 가장 중심성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어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통장’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입주자 대표’ 그룹이 가장 중심성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어서 ‘관리사무소장’, ‘통장’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다수 참여했던 반송동과 달리, 100% 민간아파트 거주민들이 참여해 관리소에 대한 관계망보다는 입주자 대표에 대한 관계망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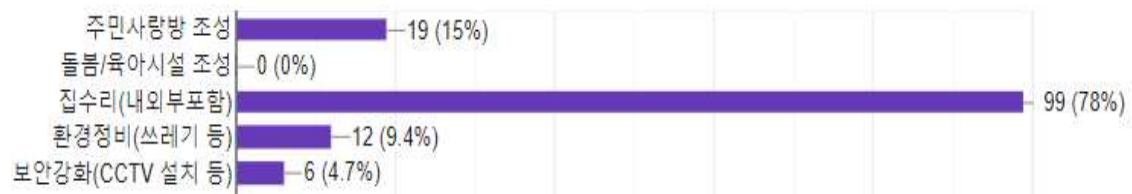
반여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물리적-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최단 경로, 즉 소셜 케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족’ 그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으며, 이어서 ‘친구’, ‘이웃’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이웃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51.1%가 '보통', 37.9%가 '신뢰하는 편', 7.5%가 '매우 신뢰'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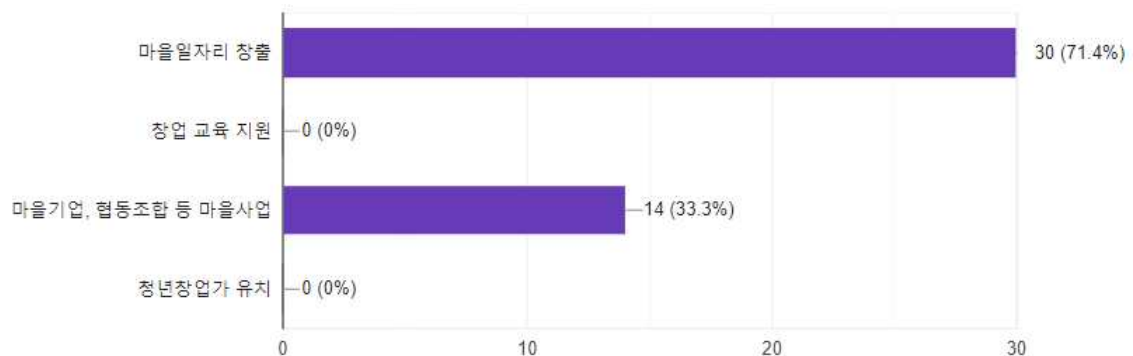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반여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현 거주지 문제점 조사 결과 노후화된 아파트와 집수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주차난, 층간소음, 실내흡연 등 공동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노후화된 배수관으로 인한 녹물(현대그린아파트), 아파트 입구 야간 신호등 점멸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도 살펴봐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승강기 관련 문제점도 다양한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 외 외부인 출입 통제, 주민갈등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및 문제점들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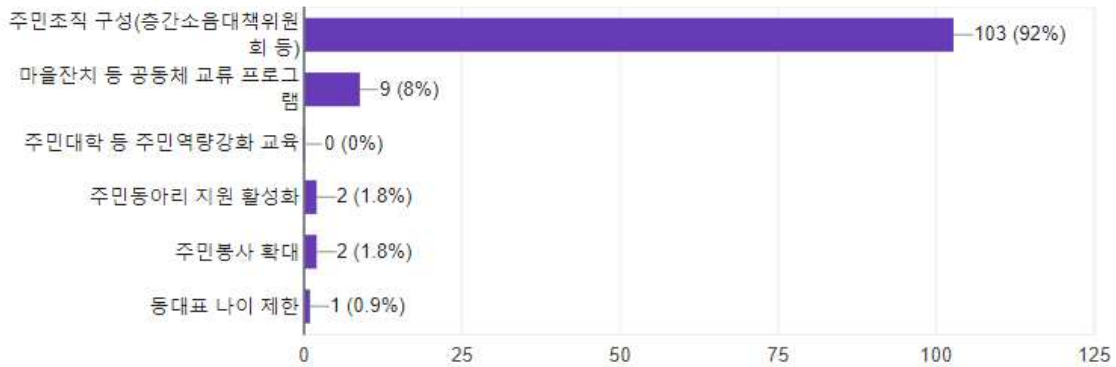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12> ~ <그림 1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12> 반여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그림 13> 반여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14〉 반여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관련, ‘취미소양교실’이 72.7%의 응답률을 얻어 가장 많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창업교육’(18.2%), ‘마을텃밭 등 공동체 공간 조성’(4.5%), ‘주민대학’(3.4%), ‘마을활동가 양성교육’(2.3%)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커뮤니티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8.1%가 ‘거의 참여하지 않음’이라 답했으며, 소수의 응답자만 ‘월 1~3회’, ‘주 1~3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그림 15〉 반여동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

이어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7.11%가 ‘없다’라고 답해 거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행되는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살펴본 결과 83.24%의 응답자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여동 아파트 거주민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편이며, 향후 참여 의향에 있어서도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4. 송정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송정동 권역에서는 총 107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7〉 송정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송정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43	40.19	373	33.42
	여성	64	59.81	743	66.58
연령대	20대	1	0.93	54	4.84
	30대	7	6.54	111	9.95
	40대	12	11.21	159	14.25
	50대	26	24.3	209	18.73
	60대	34	31.77	236	21.15
	70대	19	17.76	223	19.98
	80대 이상	8	7.47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50	46.73	908	81.36
	국민임대	57	53.27	57	5.11
	공공임대	-	-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7	6.54	76	6.81
	1년~5년	23	21.49	300	26.88
	6년~10년	48	44.86	277	24.82
	11년~20년	29	27.1	280	25.09
	21년 이상	-	-	183	16.4
점유형태	전세	27	25.23	188	16.83
	월세	40	37.38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37	34.58	706	63.21
	임대	-	-	98	8.77
	무응답	3	2.8	-	-
가구형태	부부	42	39.25	335	30.02
	부부+미혼자녀	26	24.3	432	38.71
	부부+기혼자녀	1	0.93	12	1.08
	편부+자녀	-	-	-	-
	편모+자녀	14	13.08	47	4.21
	양친+부부	-	-	-	-
	편부모+부부	3	2.8	8	0.7
	조부모+손주	-	-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1	0.93	22	1.97
	혼자	17	15.89	242	21.68
	비혈연가구	-	-	-	-
	기타	1	0.93	-	-

송정동 주민설문조사 참가자들의 기본현황을 살펴본 결과, 60대(31.77%)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이어서 50대(24.3%), 70대(17.76%)의 순으로 참여가 이뤄졌다. 국민임대 아파트와 민간아파트 거주자가 고루 참여했으며, 거주기간은 6년~10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39.25%)가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는 15.89%인 것으로 조사됐다.

1) 공동체 연결망

송정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주일 단위 가장 많이 교류하는 사람, 즉 중심성 높은 인적 관계망을 살펴본 결과 '가족' 그룹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웃'과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 107인 중 교류하는 인적 관계망이 없다고 응답한 주민은 2인에 불과해, 송정동 아파트 거주민들은 평소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리더'에 대한 조사 결과 '경비실 직원'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관리사무소장'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하는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실 직원', '입주자 대표', '동대표'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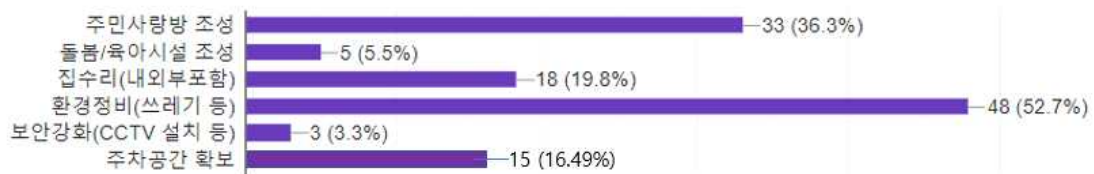
송정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평소 물리적-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최단 경로, 즉 소셜케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운데 '관리사무소장', '친구(외부)', '이웃'의 순으로 소셜케어 연결망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 유일한 소셜케어 연결망인 응답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이웃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소셜케어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소셜케어 연결망에 대해 '없다'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주민은 6인에 불과해, 공동체 돌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주민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신뢰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7.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0%가 '신뢰한다', 11.1%가 '매우 신뢰한다.'라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이웃 신뢰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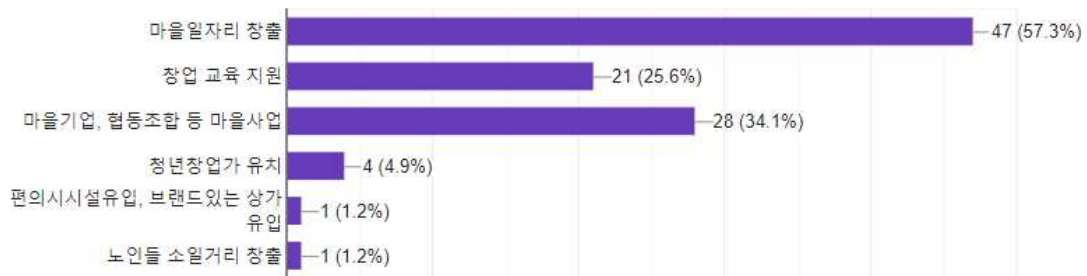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송정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내흡연’, ‘층간소음’, ‘주차난’으로 조사돼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 ‘주인의식 부재’, ‘내부 시스템 고령자 사용 어려움’, ‘교통 불편’, ‘의료기관 접근성 낮음’, ‘도시가스배관 노후화’ 등의 문제점들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문화공간 부재’에 대한 의견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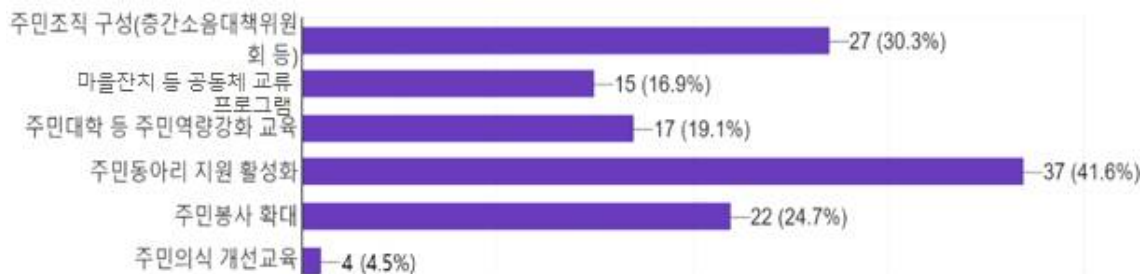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16> ~ <그림 1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6> 송정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그림 17> 송정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18> 송정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취미소양교실’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마을텃밭 등 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대학’, ‘창업

교육'의 순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참여자 전원 '없다'라고 답하거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9.23%가 '없다'라고 답해 참여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5. 우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우동 권역에서는 총 158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8〉 우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우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52	32.91	373	33.42
	여성	106	67.09	743	66.58
연령대	20대	19	12.02	54	4.84
	30대	22	13.92	111	9.95
	40대	38	24.05	159	14.25
	50대	24	15.19	209	18.73
	60대	38	24.05	236	21.15
	70대	13	8.22	223	19.98
	80대 이상	4	2.53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158	100.0	908	81.36
	국민임대	-	-	57	5.11
	공공임대	-	-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5	3.16	76	6.81
	1년~5년	55	34.81	300	26.88
	6년~10년	70	44.3	277	24.82
	11년~20년	18	11.39	280	25.09
	21년 이상	10	6.33	183	16.4
점유형태	전세	19	12.02	188	16.83
	월세	2	1.26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132	83.54	706	63.21
	임대	-	-	98	8.77
	무응답	5	3.16	-	-
가구형태	부부	40	25.31	335	30.02
	부부+미혼자녀	82	51.9	432	38.71
	부부+기혼자녀	5	3.16	12	1.08

편부+자녀	3	1.9	-	-
편모+자녀	3	1.9	47	4.21
양친+부부	2	1.26	-	-
편부모+부부	4	2.53	8	0.7
조부모+손주	-	-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4	2.53	22	1.97
혼자	14	8.86	242	21.68
비혈연가구	-	-	-	-
기타	1	0.63	-	-

연령대 분포도에 있어서는 4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조사 결과 6년~10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년~5년, 11년~20년의 순으로 나타나 신규 이주민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비중은 8.86%로 조사됐다.

1) 공동체 연결망

우동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민연결망 조사 결과 ‘가족’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네트워크로 도출됐다. 이어서 ‘이웃’ 네트워크도 비중 있는 중심성을 형성했으며, ‘친구’,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주민연결망이 도출됐다.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신규 이주민들의 비중이 높음에도 이웃과의 연결망이 활발하게 형성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58인의 조사 참여자 중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주민은 14인에 불과해 주민 연결망의 사각지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경비실 직원’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며, 각 네트워크 그룹은 상호간 매개 링크가 활발하게 형성된 것으로 도출됐다.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관리사무소장’ 그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네트워크로 도출됐으며, 이어서 ‘입주자대표’, ‘동대표’, ‘경비실직원’, ‘통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와 달리,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에서는 ‘입주자대표’, ‘동대표’, ‘통장’ 등 주민 리더 그룹의 중심성이 비중있게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입주민들이 공동체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가 다양하게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셜케어 조사 결과 돌봄 네트워크에 있어서 ‘가족’이 압도적인 중심성을 형성한 그룹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권역과 동일한 부분이었다. 이어서 ‘친구’와 ‘관리사무소’ 그룹이 네트워크 중심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주민연결망에서 비중있게 형성됐던 ‘이웃’ 그룹은 네트워크가 매우 저조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신뢰도에 있어서는 응답자 중 52.4%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2.4%가 ‘신뢰한다’, 6.2%가 ‘매우 신뢰한다’라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이웃 신뢰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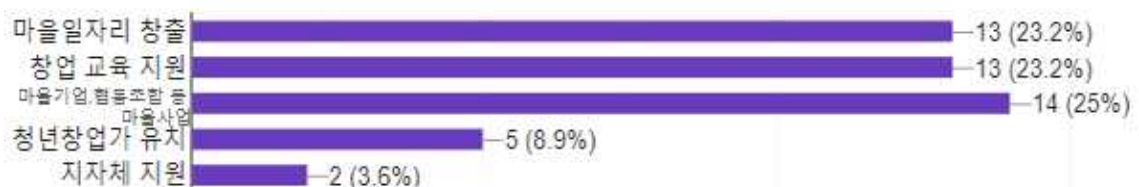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의 문제점 관련, 병원 신축 공사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일조권·사생활 침해 민원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다수 제시됐다. 또한 자이아파트 입구 신호체계 혼란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롯데아파트 9동 뒤편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진입로 불법주차로 출퇴근길 혼잡 및 신호체계 문제 등도 소수의견으로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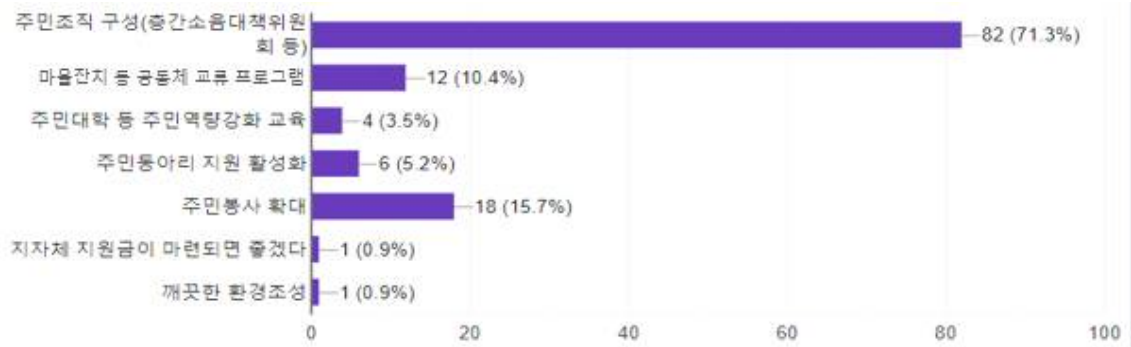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19> ~ <그림 2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9> 우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그림 20> 우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21〉 우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소양교실’에 가장 많은 의견이 수렴됐다. 이어서 ‘창업교육’, ‘마을텃밭 등 공동체 공간 조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주민대학’,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요가’ 등의 소수의견도 제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카오톡’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아파트 전용 어플리케이션, SNS의 순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에 대한 조사 결과 50.0%가 ‘거의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했지만, ‘월 1~3회’ 참여 응답자가 44.23%로 7개 권역 중 가장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5.19%가 ‘없다’라고 답해 참여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모안과병원 신축 공사 관련 주민대책회의 등에는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소수 응답자들이 있었다.

6. 재송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재송동 권역에서는 총 153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9〉 재송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재송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33	21.57	373	33.42
	여성	120	78.43	743	66.58

연령대	20대	-	-	54	4.84
	30대	43	28.1	111	9.95
	40대	33	21.57	159	14.25
	50대	25	16.34	209	18.73
	60대	20	13.07	236	21.15
	70대	29	18.95	223	19.98
	80대 이상	3	1.96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153	100.0	908	81.36
	국민임대	-	-	57	5.11
	공공임대	-	-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24	15.68	76	6.81
	1년~5년	76	49.67	300	26.88
	6년~10년	20	13.07	277	24.82
	11년~20년	22	14.38	280	25.09
	21년 이상	10	6.53	183	16.4
점유형태	전세	65	42.48	188	16.83
	월세	6	3.92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81	52.94	706	63.21
	임대	-	-	98	8.77
	무응답	1	0.65	-	-
가구형태	부부	38	24.84	335	30.02
	부부+미혼자녀	92	60.13	432	38.71
	부부+기혼자녀	-	-	12	1.08
	편부+자녀	1	0.65	-	-
	편모+자녀	1	0.65	47	4.21
	양친+부부	-	-	-	-
	편부모+부부	-	-	8	0.7
	조부모+손주	-	-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	-	22	1.97
	혼자	21	13.72	242	21.68
	비혈연가구	-	-	-	-
	기타	-	-	-	-

연령대 분포도에 있어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40대와 70대의 순으로 나타나 7개 권역 중 연령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기간에 있어서 1년~5년 사이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신규 유입 주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미혼자녀'가 가장 많은 가운데 '부부'와 '1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공동체 연결망

재송동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연결망 조사 결과 ‘가족’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권역과 동일한 부분이었으나, ‘이웃’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됨에 따라 아파트 공동체 내부에서의 인적 관계망이 비교적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민연결망에 있어서 ‘없다’라고 응답한 주민이 0으로 집계됨에 따라, 평소 매우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경비실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인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실 직원’, ‘관리사무소장’이 각각 유사한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형성하였으며, 7인의 주민은 ‘동대표’라고 응답했다.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에서도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돌봄 관계망인 소셜케어 연결망 조사 결과 ‘가족’에 대한 소셜케어 연결망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친구’와 ‘이웃’ 그룹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적인 신뢰도를 형성했던 관리주체와 더불어 ‘동대표’, ‘입주자대표’, ‘통장’ 등 기타 그룹에 대한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송동의 소셜케어 연결망이 갖는 네트워크 범위가 협소함을 의미하며, 보다 다양한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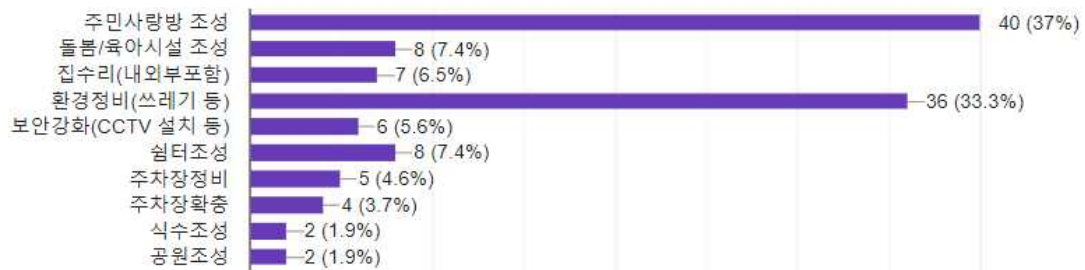
이웃 신뢰도에 있어서는 응답자 중 41.2%가 ‘보통’, 40.5%가 ‘신뢰’, 18.3%가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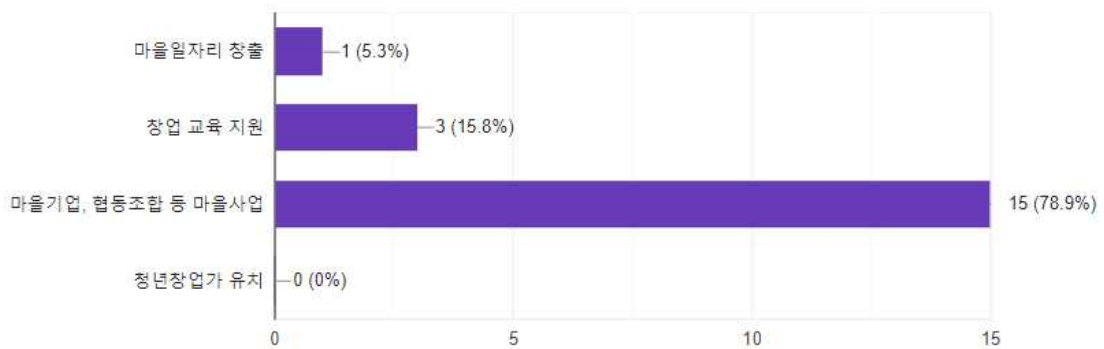
재송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거주지의 문제점은 ‘충간소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녹지부족’, ‘노인쉼터 부재’, ‘아파트 노후화’, ‘교통불편’, ‘주차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문제점이 ‘없다’라고 응답한 주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불편’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더불어 마을버스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며,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 문제 우려 의견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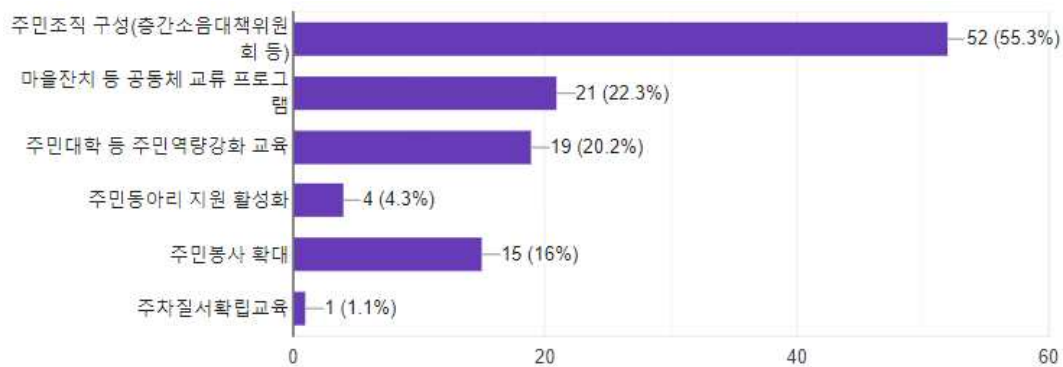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22> ~ <그림 2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2> 재송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그림 23> 재송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24> 재송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에 대한 조사 결과 55.6%가 '거의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했지만, '월 1~3회' 참여 응답자가 33.3%, '주 1~34회' 참여 응답자가 11.1%로 비교적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5.89%가 ‘없다’라고 답해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좌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좌동 권역에서는 총 230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0〉 좌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좌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70	30.43	373	33.42
	여성	160	69.57	743	66.58
연령대	20대	8	3.48	54	4.84
	30대	8	3.48	111	9.95
	40대	18	7.83	159	14.25
	50대	58	25.21	209	18.73
	60대	46	20.0	236	21.15
	70대	45	19.57	223	19.98
	80대 이상	47	20.43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179	77.83	908	81.36
	국민임대	-	-	57	5.11
	공공임대	51	22.17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9	3.91	76	6.81
	1년~5년	30	13.04	300	26.88
	6년~10년	42	18.26	277	24.82
	11년~20년	83	36.09	280	25.09
	21년 이상	66	28.69	183	16.4
점유형태	전세	17	7.39	188	16.83
	월세	35	15.22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172	74.78	706	63.21
	임대	-	-	98	8.77
	무응답	6	2.61	-	-
가구형태	부부	76	33.04	335	30.02
	부부+미혼자녀	85	36.96	432	38.71
	부부+기혼자녀	1	0.43	12	1.08
	편부+자녀	2	0.87	-	-
	편모+자녀	13	5.65	47	4.21
	양친+부부	-	-	-	-
	편부모+부부	-	-	8	0.7
	조부모+손주	3	1.3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	-	22	1.97
	혼자	42	18.26	242	21.68
	비혈연가구	-	-	-	-
	기타	-	-	-	-

7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조사에 참여한 좌동의 연령대 분포도 조사 결과,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80대 이상 > 60대 > 70대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1년~20년 > 21년 이상 > 6년~10년 > 1년~5년의 순으로 나타나 7개 권역 중 정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부부’, ‘1인 가구’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지수가 높은 권역이라 1인 가구 분포를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1) 공동체 연결망

좌동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민연결망은 가족 > 친구 > 이웃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1개 이상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립된 주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경비실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통장’, ‘동대표’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7개 권역 중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 분포이며, 좌동 아파트 거주민들은 평소 주거지에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 ‘관리사무소장’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네트워크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비실 직원’,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동대표’ 등 역시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응답자들이 평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광범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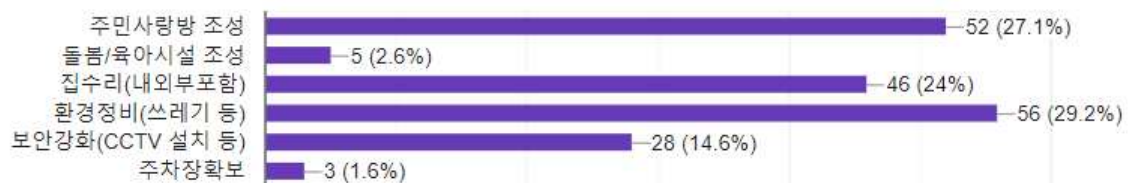
돌봄 관계망인 소셜케어 연결망 조사 결과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심성 높은 네트워크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이웃’, ‘친구’,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앞선 결과와 달리 ‘동대표’, ‘입주자 대표’에 대한 소셜케어 관계망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신뢰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6.2%가 ‘신뢰’, 32.9%가 ‘보통’, 25.1%가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이웃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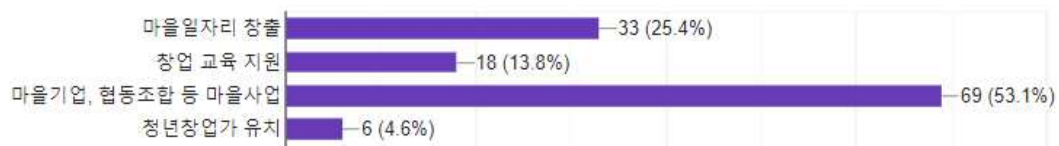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좌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거주지의 문제점은 ‘층간소음’, ‘주차난’, ‘실내흡연’ 등 공동주택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안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 승강기를 비롯한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소통부재’와 ‘외부인 출입’ 등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발견됐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빌딩풍’의 문제도 제기했으며,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민들은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의견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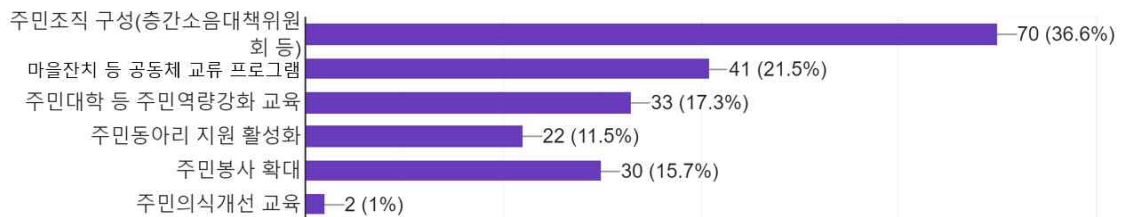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25> ~ <그림 27>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25> 좌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그림 26> 좌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27> 좌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좌동 아파트 거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SNS’와 ‘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과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응답도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에 대한 조사 결과 88.89%가 ‘거의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했으며, 11.11%의 응답자가 ‘주 1~3회’ 참여한다고 응답해 참

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8.26%가 ‘없다’라고 답해 참여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중동 주민의식 조사 결과

해운대구 중동 권역에서는 총 134명의 주민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취합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1〉 중동 주민설문조사 기본현황

구분		중동		해운대구	
		응답자(N)	비중(%)	응답자(N)	비중(%)
성별	남성	37	27.61	373	33.42
	여성	97	72.39	743	66.58
연령대	20대	20	14.92	54	4.84
	30대	16	11.94	111	9.95
	40대	29	21.64	159	14.25
	50대	28	20.9	209	18.73
	60대	16	11.94	236	21.15
	70대	16	11.94	223	19.98
	80대 이상	9	6.72	124	11.11
아파트 유형	민간	134	100.0	908	81.36
	국민임대	-	-	57	5.11
	공공임대	-	-	151	13.53
	기타	-	-	-	-
거주기간	1년 미만	19	0.75	76	6.81
	1년~5년	67	50.0	300	26.88
	6년~10년	33	24.63	277	24.82
	11년~20년	10	7.46	280	25.09
	21년 이상	5	3.73	183	16.4
점유형태	전세	20	14.93	188	16.83
	월세	12	8.95	98	8.77
	자가(가족 소유 포함)	99	73.88	706	63.21
	임대	-	-	98	8.77
	무응답	3	2.24	-	-
가구형태	부부	36	26.87	335	30.02
	부부+미혼자녀	80	59.70	432	38.71
	부부+기혼자녀	2	1.49	12	1.08
	편부+자녀	-	-	-	-
	편모+자녀	3	2.24	47	4.21
	양친+부부	-	-	-	-
	편부모+부부	-	-	8	0.7

	조부모+손주	-	-	4	0.36
	조부모+부부+자녀(3대)	7	5.22	22	1.97
	혼자	5	3.73	242	21.68
	비혈연가구	-	-	-	-
	기타	-	-	-	-

중동 아파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0대 주민들이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어서 50대 > 20대의 순으로 조사참여가 이뤄졌다. 7개 권역 중 20대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기간 조사 결과 1년~5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6년~10년,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규 유입이 많고 정주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부부+미혼자녀' 2대 구성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전체 조사참여자 중 3.73%에 불과해 7개 권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 공동체 연결망

중동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민연결망 조사 결과 '가족' 그룹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어서 '이웃', '친구'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구'와 교류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의 '이웃'과의 교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네트워크의 범위는 넓지 않지만 일상 생활에서 활발한 인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주민이 1인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평소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 분석 결과 '경비실 직원'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했으며, 이어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동대표', '입주자 대표'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됐다. 다른 권역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달리, 중동의 공동체 리더 네트워크에서는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도 다소 비중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보다 광범위함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공동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조사 결과에서는 '관리사무소장' 그룹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형성했으며, 이어서 '입주자 대표', '경비실 직원', '동대표'의 순으로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에서 '입주자 대표' 그룹이 중심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주자 대표-입주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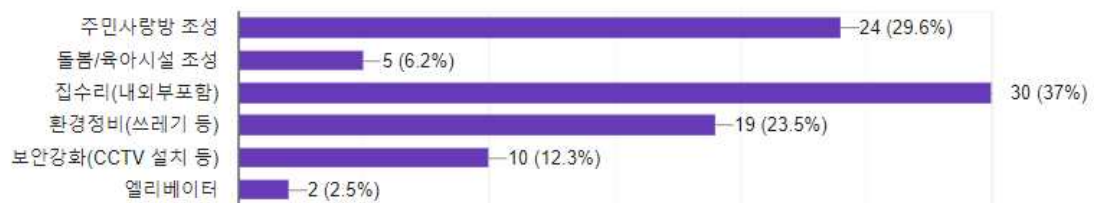
소셜케어 연결망 조사 결과 돌봄 경로에 대해 ‘가족’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하였으며, 이어서 ‘친구’와 ‘이웃’의 순으로 소셜케어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아파트 공동체 내부의 돌봄 관계망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비중이 7개 권역 중 가장 낮고 이웃과의 주민연결망도 활성화돼 있으므로 부정적인 요소로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134명의 조사참여자 중 단 2명만이 소셜케어 연결망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없다’라고 답함으로써, 돌봄 네트워크의 사각지대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웃 신뢰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3.9%가 ‘보통’, 43.2%가 ‘신뢰’, 6.1%가 ‘매우신뢰’라고 응답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중동의 아파트 거주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층간소음’으로 조사됐으며, 이어서 ‘승강기 불편 및 노후화’, ‘실내 흡연’, ‘소통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들어선 초고층 공동주택인 엘시티의 경우 ‘빌딩풍’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경유 버스가 부족해 거주민들의 교통불편(힐스테이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사고 잦음(래미안) 등의 의견들도 비중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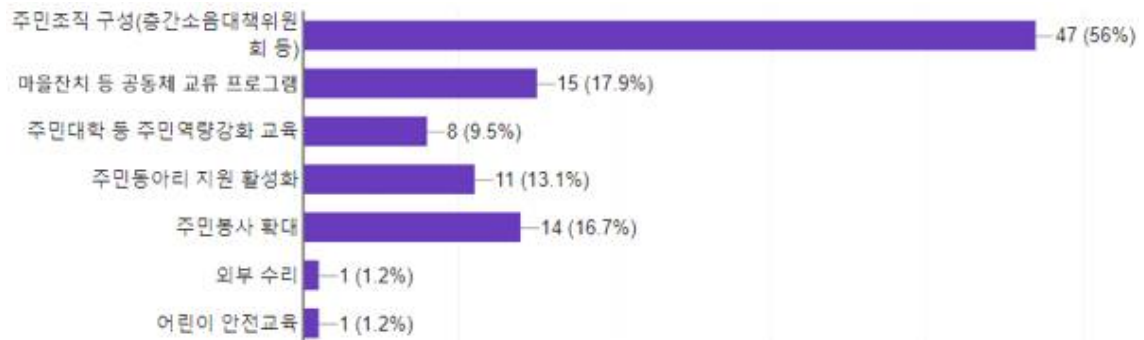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28> ~ <그림 30>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28> 중동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그림 29> 중동 경제적 개선 방안



〈그림 30〉 중동 사회적 개선 방안

3) 공동체 활성화

중동 아파트 거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SNS’와 ‘포털서비스’에 대한 응답도 일부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에 조사 결과 53.33%의 응답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월 1~3회’는 38.33%, ‘주 1~3회’는 8.33%로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거주하는 곳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 모임’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0.15%가 ‘없다’라고 답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1. 총평 및 함의

2.

해운대구 7개 권역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의식 조사 결과 각 권역별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 부분들이 있었다.

우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있어서 해운대구 평균과 비교해볼 때 반송-반여 권역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반면, 우동, 재송동, 좌동, 중동 권역은 30~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조사 결과 21.68%를 차지했지만, 반송동은 67.08%를 보여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동은 고령화 지수도 높은 곳이라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정책의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반면 우동, 재송동, 좌동, 중동 지역은 모두 '부부+미혼자녀'의 2대로 구성된 가구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은 1인가구의 비율이 3.73%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인구 유입과 정주율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 전체의 관점에서는 '1년~5년' 사이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반송동과 반여동은 각각 '21년 이상', '11년~20년'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아 정주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송동과 중동은 각각 '1년~5년'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의 비중이 63.21%로 높았지만, 반송동은 '임대'(60.87%), 송정동은 '월세'(37.38%)라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동은 국민임대 거주민들의 조사 참여가 다수 이뤄짐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체 연결망 조사 결과 7개 권역 중 주민연결망 조사에서 '이웃' 그룹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곳은 반송동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 권역은 모두 '가족'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송동 주민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한다는 것과 더불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이웃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류가 활발할 수 있다는 상반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 즉 리더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7개 권역 모두 '경비실 직원' 그룹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 즉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크와 관련해서는 반여동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게 형성됐다. 반면 반여동은 ‘입주자 대표’ 그룹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7개 권역 중 입주민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리적-경제적-심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최단경로”, 즉 소셜케어 연결망 조사 결과 7개 권역 모두 공통적으로 ‘가족’ 그룹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역별 미세한 차이점도 발견됐다. 우선 반송동의 경우 ‘가족’에 이어 ‘관공서’ 그룹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119안전센터나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체 연결망 조사 결과 ‘입주자 대표’, ‘동대표’ 등 주민조직 그룹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점은 이들 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어서 진행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해결 방안에서 ‘주민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마을리더 및 주민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마을리더 및 공동체 리더 육성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7개 권역별 조사 결과, ‘거주지 문제점 및 현안’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특징이 발견됐다. ‘층간소음’, ‘집수리’, ‘실내흡연’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문제점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차별화된 이슈들도 도출됐다. 이는 <그림 31>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31〉 7개 권역별 아파트 문제점 및 현안 조사 결과 비교

반송동과 반여동 권역의 경우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집수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송정동-재송동-좌동-중동 권역에서는 ‘층간소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아파트가 포함된 반송동, 송정동, 좌동의 경우 ‘주민갈등’, ‘주인의식 결여’, ‘소통부재’ 등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경사가 심하고 교통접근성이 낮은 재송동 권역은 ‘보행자 안전’, ‘교통불편’과 ‘녹지부족’, 우동과 중동의 경우 신호체계 교란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제시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권역별 문제점 및 현안이 갖는 특징은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개선 방안 도출 과정에서 이어졌다.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 반송동과 반여동은 ‘집수리’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민사랑방 조성’, ‘환경정비’의 순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쉼터와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했던 재송동은 ‘주민사랑방 조성’이 가장 중요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경제적 개선과 관련,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마을사업’이 우동 / 재송동 / 좌동 / 중동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실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송 / 반여 / 송정 권역의 경우 마을사업보다는 ‘마을일자리 창출’에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공공일자리 등 관에서 제공하는 주민일자리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적 개선과 관련, ‘주민조직 구성’이 7개 권역 중 5개 권역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형성했으며, 이어서 ‘공동체 교류 프로그램’과 ‘주민동아리 지원’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살펴본 공동체 연결망 조사에서 주민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측면과 연계해볼 때, 주민조직에 대한 불신보다는 향후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프로그램 수요도 조사 결과 ‘취미소양교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동체 공간 조성’, ‘창업교육’의 순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아파트 단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공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재송동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협동조합/마을기업 교육’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됐으며, ‘창업교육’과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경제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공동체 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직 활발한 이용행태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2. 정책적 제언

1) 물리적 환경 개선 방향

아파트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인 만큼, 공동주택과 관련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방향이 다수 도출됐다.

첫째,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방향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반여 권역은 노후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수리, 신도시 권역은 승강기 안전 점검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노후화된 아파트의 도시가스관 부식, 녹물 등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실태조사 및 정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의 특성상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과 불법주정차 등이 맞물려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다수 언급됐다. 이와 더불어 교통신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어려운 진입로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쉼터 등 공동체 거점공간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동과 좌동은 ‘체육시설 등 주민운동시설’, 송정동은 ‘문화공간’, 재송동은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연계된 ‘공동체 공간 조성’ 의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권역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확산을 위한 공동체 공간 마련에도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2) 경제적 활성화 방안

본 조사 과정에서 해운대 주민들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활성화 방안에 매우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마을기업 교육’ 등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를 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수렴됐다. 이와 더불어 ‘창업지원’, ‘직무역량강화’ 등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역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수립 및 이와 연계된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파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해운대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재송동, 중장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신도시 권역(우동,좌동,중동)을 중심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주민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좌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구성에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적 활성화 방안

본 조사 수행 결과 해운대구 7개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주민조직 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공동체 교류 프로그램’과 ‘주민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민의견이 수렴됐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사회적 활성화 방안의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해준다.

첫째, 주민연결망-공동체 리더 연결망-오피니언 리더 연결망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 ‘동대표’ 등 주민조직에 대한 관계중심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조직 구성’에 대한 수요가 높게 형성됐다는 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삶터와 일터 개선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민조직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가능성을 더 높이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아파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조직 구성 및 지원 활성화 정책이 해운대구 차원에서 마련된다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풀뿌리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민동아리 구성 및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의 확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동밥상 등 공동체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주민조직을 육성 및 지원해나간다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네트워크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부엌’, ‘마을식당’ 등 주민 취창업 모델과 연계한 공동체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참여 확산은 물론, 주민자치형 사회적 경제 모델 구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